

[경남소식]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등

등록 2026.02.10 17:16:36



[창원=뉴스시스]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사진=농어촌공사 경남 제공) 2026.02.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는 설명절을 맞이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지원과 농지의 이용 효율화 촉진을 위해 13일까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는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참여 확대를 목표로, 도내 시·군 전역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을 병행한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추진된다.

경남지역본부와 관내 13개 지사는 ▲시·군별 마을회관·경로당·전통시장 방문, ▲이장단협의회 등 지자체·농민 단체 회의 방문 ▲현수막·리플릿 배부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광고 게시, 문자 안내, 전화상담, 지자체 협업 홍보 등 비대면 채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지역본부는 '26년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남농협, 가축질병 방역 총력 지원



[창원=뉴시스]경남농협, 가축질병 방역현장 격려 및 방역 총력 지원. (사진=경남농협 제공)
2026.02.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농협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창녕군 방역초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류길년 경남농협 본부장과 함께 창녕군 방역초소에는 유동경 창녕군지부장, 김두찬 창녕축협조합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 3일 경남에서는 창녕군 대합면 돼지농가(2562두) 자돈 폐사 신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되었으며 6일에는 거창군 가조면 종오리농가(7420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한편 경남농협은 철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위해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86개 공동방제단, 20개 거점소독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AI 및 ASF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과 방역용품 비축기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